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6권 제2호, 2023년 8월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6 No. 2, 52-61, August 2023
p-ISSN 1225-9608 | e-ISSN 2288-9957
https://doi.org/10.15434/kssh.2023.36.2.52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출 실행 위험 요인 연구

박 현 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간호대학 교수

A Study on Risk Factors for Runaway Behavior in Adolescents with Runaway Experience and Adolescents with Runaway Contemplation

Hyunju Park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cheon Camp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between adolescents who have run away from home before and who have contemplated running away from home before, and to find risk factors that predict runaway behavior among them. **Methods:** The data of「the survey on adolescents'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the way to ensure their housing with the focus on social exclusion」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0) were analyzed. A total of 494 adolesc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t-test, and simple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s were carried out using SAS 9.2. **Results:** Gender,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and school leve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From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adjusted odds ratio for runaway behavio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students (AOR: 2.14, $p<.001$), lower in the middle economic class than in the high economic class (AOR: 0.64, $p=.051$), lower in the 4th quartile group of self-esteem (AOR: 0.52, $p=.041$), and higher in high school students (AOR: 1.55, $p=.050$). **Conclusion:** Considering that male students, students from wealthier families, students with low self-esteem,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high-risk groups for runaway behavior, among adolescents who have contemplated running away before, interventions targeting these groups are needed.

Key Words: Runaway;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Risk facto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4438명, 고등학생 5456명 중 중학생의 11.9%, 고등학생의 11.2%에서 최근 1년 이내 가출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1], 최근 1년 이내 가출 경험율은 중학생 2.7%, 고등학생 2.6%로 나타났다[1]. 청소년의 가출은 알콜 중독, 마약, 성범죄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2-4].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가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Corresponding author: Hyunju Park
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879, Fax: +82-33-242-8840, E-mail: hpark@kangwon.ac.kr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아동·청소년 주거환경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the survey on adolescents'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the way to ensure their housing with the focus on social exclusion」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Received: Jul 3, 2023 / Revised: Aug 16, 2023 / Accepted: Aug 16,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 보고된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성별, 연령, 경제 수준, 학교급, 학업성적, 우울, 불안 등의 개인적 요인,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 유대 등의 가족 요인, 학교 스트레스, 친구의 지지와 같은 학교 및 또래 친구 요인 등이 가출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5-12].

또한 직접적인 가출 경험 대신에 '가출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가출충동을 결과변수로 한 연구들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들의 결과 역시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성별,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 가족의 유대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같은 가족 요인, 학교체벌 경험과 같은 학교 요인 및 친구와의 관계 등이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3-17].

그런데, 가출 생각 혹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가출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18]. 위에서 기술했듯이 약 11% 정도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고민하고 있지만, 가출 경험률은 2.7%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다[1]. 따라서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가출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중재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각각에서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두 개 찾을 수 있었다[13,18]. 그런데, 이 두 연구는 모두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가출 생각을 예측하는 변인과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을 각각 제시하였기 때문에, 두 그룹 청소년들이 어떠한 특성 혹은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 중 하나의 연구에서는 가출 생각 및 가출 경험의 예측요인을 비교적 제한된 요인 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13],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개인적, 가족적, 학교 및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차이점 중 실제 가출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출 생각이나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를 가능한 많이 포함하여 포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에는 성별, 경제수준,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주관적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가족 관련 특성에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여부(부모와의 동거 여부), 방임 및 학대 경험, 가족만족도를 포함하였다.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는 학교급, 학교생활만족도와 가족 이외 사람들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 중 어떤 청소년들이 실제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을 위한 중재 및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가출 실행의 위험요인을 찾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각각의 변수 별로 가출 생각만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 실행의 위험 정도를 파악한다.
- 가출 실행의 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실제 가출 실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실시한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도 「아동 · 청소년 주거환경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

년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에 포함된 조사자료이다[19]. 본 조사는 202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모집단으로 설정되었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2019년도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총 6,000명을 목표 표본수로 설정하였다. 층화 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 조사업체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19].

원시자료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5,914명이었는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설문 문항이 약간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제외하였을 때 원시자료에 포함된 중·고등학생이 4,326명이었다. 이들 중 가출 경험 여부나 가출 생각 여부에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 53명을 제외하면 총 4,373명이었고, 이중 최근 1년 내에 가출을 경험이 있는 학생이 135명, 가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출 생각이 있는 학생이 35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 494명을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의 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계산하였다. 예측변수 k=최대 10개, 종속변수(가출 경험)의 사건 발생 확률 p=.27 (본 연구에서는 135명/494명) 일 때, 필요한 샘플의 수는 371명(10 k/p)으로 계산되었다[20]. 본 연구에서는 최종 494명이 포함되었으므로 충분한 효과크기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된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이며, 이 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원시자료 이용을 위한 동의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요인은 개인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 가출 경험 및 가출 생각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는 성별(남, 녀), 가구경제수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우울, 불안, 삶의 만족도, 주관적 신체건강, 주관적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다.

가구경제수준은 우리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질문하였고,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분류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상(상과 중상 포함), 중(중), 하(중하와 하 포함)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은 '최근 1년 동안,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라는 원시 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파악하였고, 불안은 '최근 1년 동안,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 문항에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를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것으로 다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요즘 내 삶(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라는 질문에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신체건강과 주관적 정신건강은 내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및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에 관해 질문하였고, 1점(전혀 건강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건강하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주관적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은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나 신체건강,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21],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자질(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에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따라서 마지막 질문은 부정 문항이므로 역코딩을 하여 총 3문항의 점수의 합을 자아존중감 점수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문항의 원 저자는 신뢰도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79로 조사되었다.

스트레스는 '요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나요?'라는 질문에 1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많이 느낀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2) 가족 관련 특성

가족 관련 특성은 부모와의 거주 여부, 방임, 학대, 가족만족도를 포함한다. 부모와의 거주 여부는 현재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고르도록 하였는데,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나 모 둘 중 한 명과 거주하는 경우(편부 혹은 편모 가정), 부모 모두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방임과 학대는 최근 1년간 부모님(혹은 보호자)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질문하여 파악하였다. 방임의 경우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있게 했는지,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는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지저분하거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 묻고, 이 중 한 가지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방임 경험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대는 부모가 욕이나 저주하는 말을 했는지, 손·발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때렸는지, 큰소리로 위협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 중 한 가지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학대 경험자로 분류하였다.

가족만족도는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학생들은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는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만족도와 가족 이외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포함한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학생들은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 이외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총 8문항을 통해 파악하였다. 학생들에게 '또래, 선후배, 성인들(부모님과 가족 제외)에게서 받은 최근 1년간의 경험'을 질문하였고, 여기에는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손·발이나 물건으로 맞거나, 물건이나 돈을 빼앗겼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강제 심부름(빵셔틀, 게임 셔틀)을 당하거나,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당하거나,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들 중 하나라도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면 가족 이외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4) 가출 경험 및 가출 생각 여부

가출 경험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한 경험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학생들은 '없다', '1회', '2회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없다'와 '있다'(1회 및 2회 이상)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출 생각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학생들은 '없다'와 '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5. 자료분석

우선,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생각만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술통계와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출 생각만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 실행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를 포함하여 실제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AS 9.2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가출 경험 청소년과 가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의 특성 비교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생각만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되어있다. 개인적 특성부터 살펴보면, 가구 경제수준, 거주 지역, 삶의 만족도, 주관적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스트레스는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은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남학생이 64.4%(135명 중 87명), 가출 생각만 있는 학생 중 남학생이 41.5%(359명 중 149명)로 나타나 가출 경험 그룹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우울의 경우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우울 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51.5%(134명 중 69명), 가출 생각만 있는 학생 중 우울 군은 66.9%(359명 중 240명)로 가출 생각만 있는 그룹에서 우울한 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 불안의 경우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불안 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43.3%(134명 중 58명), 가출 생각만 있는 학생 중 불안 군은 54.5%(358명 중 195명)로 가출 생각만 있는

Table 1. Differences in Adolescents with Experience of Runaway and Those with Contemplation of Runaway from Home (*N*=494)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Runaway-experienced	Runaway-contemplated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Personal factors	Gender	Male	87 (64.4)	149 (41.5)	20.69	< .001
		Female	48 (35.6)	210 (58.5)		
	Economic status*	Low	8 (6.0)	22 (6.2)	4.44	.109
		Middle	71 (53.4)	225 (63.2)		
		High	54 (40.6)	109 (30.6)		
	Living area	Metropolitan city	56 (41.5)	145 (40.4)	0.40	.819
		Medium-sized city	69 (51.1)	181 (50.4)		
		Rural area	10 (7.4)	33 (9.2)		
	Depression†	Yes	69 (51.5)	240 (66.9)	9.84	.002
		No	65 (48.5)	119 (33.1)		
	Anxiety‡	Yes	58 (43.3)	195 (54.5)	4.88	.027
		No	76 (56.7)	163 (45.5)		
	Life satisfaction	(Range: 1~10)	6.22±2.49	5.89±2.36	1.39	.165
	Physical subjective health	(Range: 1~10)	6.70±2.43	6.73±2.18	-0.16	.873
	Psychological subjective health†	(Range: 1~10)	6.04±2.62	5.72±2.39	1.27	.203
	Self-esteem†	(Range: 3~12)	8.62±2.45	7.79±2.23	3.60	< .001
	Stress†	(Range: 1~10)	7.22±2.19	7.57±1.92	-1.71	.088
Familial factors	Living with parents	None	5 (3.7)	11 (3.1)	0.75	.688
		Single parent	11 (8.1)	38 (10.6)		
		Both parents	119 (88.2)	310 (86.3)		
	Neglect	Yes	39 (28.9)	91 (25.3)	0.63	.426
		No	96 (71.1)	268 (74.7)		
	Abuse	Yes	61 (45.2)	165 (46.0)	0.02	.877
		No	74 (54.8)	194 (54.0)		
	Familial satisfaction	(Range: 1~10)	7.21±2.53	7.28±2.18	-0.28	.779
School and social factors	School level	Middle school	46 (34.1)	158 (44.0)	4.00	.046
		High school	89 (65.9)	201 (56.0)		
	School satisfaction‡	(Range: 1~10)	6.52±2.49	6.50±2.33	0.07	.943
	Violence from other than family	Yes	44 (32.6)	143 (39.8)	2.19	.139
		No	91 (67.4)	216 (60.2)		

*5 missings; †1 missing; ‡2 missings.

그룹에서 불안한 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27). 자아존중감은 가출 경험 그룹에서 8.62±2.45점, 가출 생각 그룹에서는 7.79±2.23점으로 가출 경험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가족 관련 특성의 경우 부모와 거주여부, 방임, 학대의 경험, 가족만족도 모두 가출 경험 그룹과 가출 생각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및 가족 이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경험 모두 가출 경험 그룹과 가출 생각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학교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5.9%(135명 중 89명), 가출 생각만 있는 학생 중 고등학생은 56.0%(359명 중 201명)로 가출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고등학생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46).

2. 가출 생각만 있는 청소년들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서의 가출 실행 위험 정도

개인적 특성, 가족 관련 특성,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 별로 가출 생각만 있는 학생들과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 실행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우선, 개인적 특성에서는 거주 지역, 삶의 만족도, 주관적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가구경제수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부터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출을 경험할 교차비(odds ratio)가 2.56배(95% CI: 1.69~3.85)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가구경제수준은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을 가진 그룹에서 가출 경험의 교차비가 0.64배(95% CI: 0.43~0.97)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이는 중간 정도의 가구경제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높은 경제수준을 가진 학생들보다 가출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경우 우울군에 비해 비우울군의 교차비가 1.90배(95% CI: 1.27~2.85)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 불안군에 비

Table 2. Odds Ratios for Runaway among Runaway-Experienced and Runaway-Contemplated Adolescents (*N*=494)

Factors	Variables	Categories	Rate of runaway-experienced % (frequency)	OR (95% CI)
Personal factors	Gender	Female	18.6 (48/258)	1
		Male	36.9 (87/236)	2.56 (1.69~3.85)
	Economic status*	High	33.1 (54/163)	1
		Middle	24.0 (71/296)	0.64 (0.42~0.97)
		Low	26.7 (8/30)	0.73 (0.31~1.76)
	Living area	Metropolitan city	27.9 (56/201)	1
		Medium-sized city	27.6 (69/250)	0.99 (0.65~1.49)
		Rural area	23.3 (10/43)	0.79 (0.36~1.70)
	Depression †	Yes	22.3 (69/309)	1
		No	35.3 (65/184)	1.90 (1.27~2.85)
	Anxiety ‡	Yes	22.9 (58/253)	1
		No	31.8 (76/239)	1.57 (1.05~2.34)
	Life satisfaction			0.94 (0.87~1.03)
	Physical subjective health			1.01 (0.92~1.10)
	Psychological subjective health †			0.95 (0.88~1.03)
	Self-esteem †	≤6 (1st quartile)	23.3 (34/146)	1
		>6~8 (2nd quartile)	19.9 (26/131)	0.82 (0.45~1.45)
		>8~10 (3rd quartile)	28.1 (39/139)	1.29 (0.75~2.19)
		>10 (4th quartile)	45.5 (35/77)	2.75 (1.52~4.95)
	Stress †			1.09 (0.99~1.20)
Familial factors	Living with parents	Both parents	27.7 (119/429)	1
		None	31.3 (5/16)	1.18 (0.40~3.48)
		Single parents	22.5 (11/38)	0.75 (0.37~1.52)
	Neglect	No	26.4 (96/364)	1
		Yes	30.0 (39/130)	1.20 (0.77~1.86)
	Abuse	No	27.6 (74/268)	1
		Yes	27.0 (61/226)	0.97 (0.65~1.44)
	Familial satisfaction			1.01 (0.93~1.11)
School and social factors	School level	Middle school	22.6 (46/204)	1
		High school	30.7 (89/290)	1.52 (1.01~2.30)
	School satisfaction ‡			1.00 (0.92~1.09)
	Violence from other than family	No	29.6 (91/216)	1
		Yes	23.5 (44/187)	0.73 (0.48~1.11)

*5 missings; †1 missing; ‡2 missings; Rate of runaway-experienced=runaway experienced students/(runaway contemplated students + runaway experienced students); CI=Confidence interval; OR=Odds ratio.

해 비불안군의 교차비가 1.57배(95% CI: 1.05~2.34)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4분위수를 참고하여 4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사분위에 비해 4사분위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그룹에서 교차비가 2.75배(95% CI: 1.52~4.95)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1사분위와 비교하였을 때 2사분위와 3사분위 학생들에서 가출 경험 위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유의한 것이 없었으며,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학교급이 유일하게 유의하였다. 즉,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차비가 1.52배(95% CI: 1.01~2.30)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3. 가출 경험의 예측 변수

단변량 분석 결과 가출 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적 특성(성별, 가구경제수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학교급)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어떤 변수들이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은 가출 경험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가출 경험의 위험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출 경험의 교차비가 2.14배(95% CI: 1.37~3.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가구경제수준은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의 교차비가 0.64배(95% CI: 0.41~1.00)로 나타났으며 경계성 유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p=.051). 즉, 중간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의 가출 경험 교차비가 1.56배(0.64의 역수)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1사분위에 비해 4사분위의 학생들이 가출 경험의 교차비가 0.52배(95% CI: 0.28~0.97)로 나타나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41). 즉, 4사분위 학생에 비해 1사분위 학생에서 가출 경험의 교차비가 1.92배(0.52의 역수)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교차비가 1.55배(95% CI: 1.00~2.3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계성 유의수준으로 조사되었다(p=.050).

Table 3. Predictors of Runaway among Runaway-Experienced and Runaway-Contemplated Adolescents (N=488)

Variables	Categories	AOR (95% CI)	p
Gender	Female	1	<.001
	Male	2.14 (1.37~3.34)	
Economic status	High	1	.051
	Middle	0.64 (0.41~1.00)	.346
	Low	0.65 (0.26~1.61)	
Depression	No	1	.290
	Yes	0.75 (0.44~1.29)	
Anxiety	No	1	.945
	Yes	1.02 (0.60~1.73)	
Self-esteem	1st quartile	1	.325
	2nd quartile	1.35 (0.74~2.44)	.786
	3rd quartile	0.93 (0.53~1.62)	.041
	4th quartile	0.52 (0.28~0.97)	
School level	Middle school	1	.050
	High school	1.55 (1.00~2.38)	

A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가출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개인적 특성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의 일부 변수(성별,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학교급)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 관련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 관련 요인 즉, 양친부모 여부, 부모로부터의 방임이나 학대, 가족과의 유대를 의미하는 가족만족도가 가출 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13,15,16,18], 가출 경험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5,7,18,22] 보고되었다. 또한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에 포함된 학교생활만족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 역시 가출 생각이나 가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0,1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관련 특성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이 실제 가출의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가족 관련 요인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이 두 그룹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는 가출생각이 있었거나 혹은 가출경험이 있었던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이며, 가출 생각이 없던 학생들이 본 표본에 포함되었다면, 위의 변수들이 유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출 생각을 가진 학생이 실제 가출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생각에 그칠 것인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가족 관련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의 일부 변수들이(성별,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학교급) 보다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해석해야 한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개인적 요인은 성별,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학교 생활 및 사회적 특성은 학교급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은 남학생에서 가출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가출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출 생각이 있는 그룹과 가출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각각의 그룹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출 생각은 여학생에게 유의하게 높았고, 가출 경험은 남학생이 유의하게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8]. 또한, 두 그룹을 비교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성별이 가출 경험의 위험요인이며, 남학생이 더 많이 가출을 경험한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5].

둘째로,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자아존중감이었다. 그런데,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에서 방향성이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가출 경험 군이 가출 생각 군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 군에서 가출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 남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23,24] 다변량 분석에서 성별을 보정한 이후에는 (즉, 성별이 가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출의 경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가출 생각이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찾을 수 있었고[13,15,16,18],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가출경험도 유의하게 낮아진다고 한 연구들도 찾을 수 있었다[9,18].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출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룹과 직접 경험한 군 사이에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실제 가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우울과 불안이 없는 그룹에서 가출 경험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가출 생각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고[15,16,18], 또한 가출 경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5,7,18].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원인을 추론해보자면, 우울이나 불안이 높은 경우 활동 자체가 감소될 가능성, 즉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에너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25] 직접 가출을 감행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추론일 뿐, 실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울과 불안은 다변량 분석 결과 가출 경험의 예측 변수는 아니었다.

넷째,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가출 경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경계성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급은 아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출 생각의 위험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14,18].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출 경험도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찾을 수 있다[18]. 이 두 연구 모두 가출 생각이 있는 그룹과 가출 경험이 있는 그룹을 직접 비교한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는 직접 비교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가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가출 실행의 위험이 높은 그룹으로 이들을 가출 실행의 고위험군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구경제수준은 단변량 분석 결과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에서 가출 실행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도 경계성 유의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과 가구경제수준은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었고[5], 가구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출 생각과 가출 충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18].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일단 가출 생각이 있거나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면 중간 정도보다는 높은 정도의 가구경제수준을 가진 청소년에서 가출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출을 반복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11] 반대되는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관해서는 추후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남학생일 경우 혹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가구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고등학생일 경우 실제 가출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취약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이 가출 예방을 위한 중재가 시급한 집단임을 파악하여 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실제 가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부정적인 또래 압력이나[12] 학업성적[18], 연령 등을 본 연구에서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미 수집된 자료의 이차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실제로 가출을 행한 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적, 가족적, 학교 및 사회적 특성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첫 번째 연구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중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가출을 행할 위험이 높은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출 예방을 위한 기본 자료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에 포함된 조사자료인 「아동 · 청소년 주거환경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자료(2020년도)를 이용하여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출 생각이 있는 청소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에서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출 생각이 있는 그룹과 가출 경험이 있는 그룹 사이에는 가족 관련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이나 학교생활 및 사회적 특성의 일부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우울군 보다는 비우울군이, 불안군보다는 비불안군에서 가출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최종적으로, 가출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아존중감, 가구경제수준과 학교급이었다. 즉, 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남학생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가구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고등학생들이 가출을 실제로 행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가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Youth media use and harmful environment [Internet]. Seoul: Author; 2020 [cited 2022 July 1].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3
2. Johnson KD, Whitbeck LB, Hoyt DR. Substance abuse disorders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Drug Issues. 2005;35(4):799-816. https://doi.org/10.1177/002204260503500407
3. Whitbeck LB, Hoyt DR, Johnson KD, Chen X. Victim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007;22(6):721-734. https://doi.org/10.1891/088667007782793165
4. Park H. Influence of runaway experience on sexual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9;32(2):96-104. https://doi.org/10.15434/kssh.2019.32.2.96
5. Bae JH, Lee Y, Shim HI, Lee J. A study of risk factors for adolescent home-running depending on adolescent phase. Social Science Research. 2013;20(2):83-112.
6. Cha MH, Yang JK, Jung KY. Analysis to influence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s runaway behavior.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2010;15:165-192.
7. Kim J, Sung S, Park H, Han K.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repetitive runaway behavior amongst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18;29(1):239-263. https://doi.org/10.14816/sky.2018.29.1.239
8. Kang GM.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youth runaways. Studies on Korean Youth. 2015;26(2):115-144. https://doi.org/10.14816/sky.2015.26.2.115
9. Kim YS, Kim HW. Exploration on adolescents' runaway and related variables of family, school, and self-concept factor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07;5(2):43-55.
10. Chung K, Kim S. A meta-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youth runaway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2;9(3):1-17.
11. Lee Y, Kim H. Recidivism of runaway behaviors among youths: effects of economic status and social bonding. Journal of Youth Welfare. 2014;16(3):153- 178.
12. Han SC. Explor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8;14(1):273-298.
13. Park JS, Hwang SH.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unaway impulse influencing adolescents' runawa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10;17(10):1-21.
14. Park MS. Potential risk of run away behavior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6;13(1):85-106.
15. Park SY, Cho S. A study on the runaway impulse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18(12):203-225.
16. Bae M, Jeon GY. A study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olescents' runaway drive: focusing on personal, familial, school and peer variables. Human Ecology Research. 2002;40(1):23-35.
17. Kim EJ. Causes of runaway impulse by gender in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1;17(2):125-131.
18. Oh SH.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youth runaway: focus on the runaway impulse and runaway experi-

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0;12(4):301-324.
19.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on adolescents'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the way to ensure their housing with the focus on social exclusion [Internet]. Sejong: Author; 2020 [cited 2022 July 1]. Available from: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474
20. Peduzzi P, Concato J, Kemper E, Holford TR, Feinstein AR. A simulation study of the number of events per variable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1996; 49:1373-1379.
2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et]. Sejong: Author; 2020 [cited 2022 July 1]. Available from: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663&seltab_idx=0&edomweivgp=R
22. Cho CH. A vert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youth's runaway: focusing on family setting, self-control, peer relation. 2008 Conference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2008 May 23;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2008. p. 379-393.
23. Quatman T, Watson CM.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lf-esteem: an exploration of domai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2001;162(1):93-117. https://doi.org/10.1080/00221320109597883
24. Kearney-Cooke A. Gender differences and self-esteem. Journal of Gender Specific Medicine. 1999;2(3):46-52.
25. Lee HJ. The effect of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effect of mediators, depression and impulsivity. Forum For Youth Culture. 2010;23:143-171.